

# 여름방학 맞아 눈길끄는 어린이책

세계명작, 그림책, 학습용 기획물 등 다양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여름방학. 각 출판사에서 방학을 기해 내놓은 아동기획물들이 양질의 내용을 자랑하면서 어린이와 부모들의 발길을 잡아끌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계명작'으로 인정받은 작품을 새롭게 번역해서 내놓은 완역본이다. 그외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굵직한 단행본과 전문 출판사의 노하우가 집적된 그림책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세계 각국의 걸출한 문학가들의 동화전집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세계명작동화의 완역 작업은 주로 시공사, 한길사, 한뜻출판사, 아람드리 출판사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완간 상태로 나와 있는 책은 《안데르센 동화전집》(전7권, 한뜻출판사) 《그림동화》(전10권, 한길사)이다.

한뜻출판사의 김동건씨(32, 편집부)는 안데르센의 동화 153편 모두를 완역해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처음엔 안데르센의 작품이 어릴 때 읽었던 몇몇 작품들처럼 달콤한 아이스크림 맛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니 죽음이나 고독 처럼 어린이가 소화하기 힘든 주제를 안고 있더군요. 그런데도 독자들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한길사의 《그림동화》(김경연 옮김)도 180년 전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작품을 완역한 전집. 그간 〈백설공주〉 〈개구리 왕자〉 〈헨젤과 그레텔〉 정도로 소개됐으나 이 전집에는 211편 모두 실렸다. 심술긋은 계모와 봉건적 군주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 낭만주의 시대 독일 민중의 정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동화의 '바이블'이라 부르기엔 손색이 없는 두 거장의 전집 완역 출간을 보며 한 출판관계자는 “이 완역 작업이 세계 명작 동화를 전집으로 출판해 선점권을 쥐고 있던 출판사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신생출판사나 새로이 어린이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출판사에서 이뤄진 점이 이채롭다”고 평한다. 또 기왕에 나온 전집류들이 주로 일본어본을 중역한 것이거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내용을 무더기로 자르거나 짜깁기해 삽화의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완역 작업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완역 출간의 움직임은 시공사, 아람드리출

판사에서도 시리즈로 기획, 추진 중이다. 세계의 걸작 이야기책 《네버랜드 스토리 북스》를 기획한 시공사에서는 유머와 풍자로서 자신의 발랄한 상상력을 내비쳤던 에리히 캐스트너(1899~1974)의 전집을 1번 타석에 내세웠다. 전 12권 출간 예정으로 우선 1차분 《날으는 교실》 《로테와 루이제》 《동물회의》 《5월 35일》 《핑크트렌과 안톤》 《에밀과 탐정들》이 출간됐다.

어린이를 철저히 어른과 독립된 한 인격체로 배치하고 어린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모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 작품들에는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이 짙게 깔려 있다. 뒤따라 곧 출간될 6권은 《이발소의 돼지》 《에밀과 세 쌍둥이》 《내가 어렸을 때에》 《작은 남자》 《작은 남자와 작은 여자》 《마법에 걸린 전자기》이다. 이 가운데 《5월 35일》과 《마법에 걸린 전자기》 《작은 남자와 작은 여자》 《내가 어렸을 때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

한편 아람드리출판사에서도 총 30권짜리 《아람드리 어린이 문학》시리즈를 기획, 세계 각국에서 명작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을 나라별, 작가별로 출간할 예정이다. 현재 출간된 책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설가이자 극작인 카렐차페크의 《작은 새와 천사의 알 이야기》, 영국 태생의 미국 아동문학가 휴 로프팅의 《돌리틀 선생 아프리카로 간다》(이하 변은숙·홍혜영 옮김)이다. 《작은 새와...》는 예전에 한길사에서 《어느 의사의 길고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던 작품. 아람드리출판사에서는 곧 A.A 밀튼(영국) 엔데(독일) 다랄 클레이튼(인도) 모리스 드루옹(프랑스) 등 각국의 걸출한 아동문학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볼거리 겸한 수준높은 그림책들

그동안 그림책을 꾸준히 내왔던 출판사가 다년간 집적한 노하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도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볼거리이자 읽을거리.

현재 나와 있는 그림책으로 〈철학그림책〉 시리즈(마루별)와 《음악 천사의 사랑》(이강숙 지음, 김병중 그림, 비룡소)이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어린이 그림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입양문제, 전쟁, 운명 등의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룬 《철학그림책》시리즈는 세권이 이미 나와 있다. 《문이》(라스칼 글, 소

방학을 맞아 서점가에는 각 출판사들의 굵직한 기획물들이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해외의 명작을 완역한 전집에서부터 그림책, 교육적 효과가 높은 기획물까지 다양해 어린이와 부모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최근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어린이책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피 그림, 홍성혜 옮김) 《시냇물 저쪽》(엘즈비에타 글·그림, 홍성혜 옮김) 《빨간 아기도끼》(라스칼 글, 클로드 듀보아 그림, 홍성혜 옮김)인데 인간의 문제를 동물로 표현하면서 철학적인 주제를 끌어낸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강숙 교장이 글을 쓰고, 서울대 미술대학 김병중 교수가 그림을 그린 《음악 천사의 사랑》은 음악 천사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이해하는 원리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그림책.

출판사들의 참신한 기획력에서 출발한 단행본도 눈에 띈다. 《아빠와 함께하는 스페인 자전거 여행》(강덕치 글·그림·사진, 현암사) 《나라를 지킨 사람들》(전3권, 임형진 엮음, 홍옥순 그림) 《개 한마리 갖고 싶어요》(푸른나무)가 그것. 《아빠와...》는 두 아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풍물과 전설, 동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이 어린이들에게 여행의 꿈을 키워준다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어린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끔 한다. 역사 속의 실존 인물과 현대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에 되고 싶은 인물의 지향도를 머리 속에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푸른나무’에서 펴낸 동화 두 권은 모두 외국 작가가 쓴 어린이 생활동화. 동물 친구를 키우고 싶어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린이들의 생 각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

다.

## 교육효과 겨냥한 아심찬 기획시리즈물

완역 출간물과 굵직한 단행본들이 주로 어린이 문학 쪽에 치중한 반면, 몇몇 출판사가 아심차게 기획한 시리즈물은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한길사의 《쑥쑥 술술 우리말 키우기》(전5권, 우리누리 지음)와 아람드리출판사가 5~9세 어린이에 맞춰 펴낸 주제별 백과사전 〈라루스 어린이 백과〉(전30권) 시리즈, 사계절출판사의 《교과서 릴레이 과학동화》(전3권, 엄광용 지음) 《놀이보따리》(전국재 지음, 윤컴)이 그것.

《쑥쑥 술술 우리말 키우기》는 5~8세를 위한 본격 어휘발달 프로그램이다. 아직 읽기와 쓰기에 익숙치 않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낱말과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편집된 이 책은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라루스 어린이 백과〉시리즈는 공간개념, 시간개념 등 기초적인 상식을 주제별로 다뤘고, 《교과서 릴레이 과학동화》는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상식을 재미있는 동화로 구성한 책. 마지막으로 《놀이 보따리》(전3권)는 놀이와 일과 교육을 하나로 묶은 이색적인 놀이모음. 캠핑·자연놀이·교회질기 놀이·학교 놀이·가족 놀이·환경 놀이편 등으로 나뉘어 있어 때와 장소에 맞춰 유쾌하게 놀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배은희 기자